

2016년 4월 25일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今ここで幸せなこと

아들러는
アドラーは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人生で避けられない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3つの課題があるといました

일, 교우관계, 사랑이 그것입니다.
仕事、交友関係、愛がそれです

이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この課題を解決する能力がない人は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과제로부터
いくつかの言い訳を書いてでも課題から

도망치려고 합니다.
逃げようとする

- 기시미 이치로의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중에서 -
- 岸見一郎の<今ここで幸せなこと>より -

* 프로이트는
* フロイトは

사랑, 일, 놀이를
愛、仕事、遊びを

3대 행복의 조건이라 말했습니다.
3大幸せの条件と言いました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사랑,
今している仕事、今している愛

그것을 놀이로 만들 줄 아는 여유,
それを、遊びにすることができる余裕

그것만 있으면 지금 어디서든
それだけあれば、今どこでも

행복할 수 있습니다.
幸せになれます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今日もたくさん笑ってください

교우 (交友)
[명사] 交友.

20160425.txt

핑계

[명사] 口実; 言い訳; かこつけ; 言いぐさ; 逃げ口上(...

2016년 4월 26일 오늘의 아침편지

두 팔 벌려 안고 싶다
両腕を広げて抱きしめたい

어린 시절엔
幼い時節には

높은 사람이 귀한 사람인줄 알았었다.
高い人が、貴重な人だった

젊은 시절엔
若い時節には

멀리 있는 것이 그리운 것 인줄 알았었다.
遠くにいることが、懐かしいことだった

일흔이 넘어서니
70を越えると

눈 머물거나 손닿는 것들이 소중하다.
目どどまったり、手に届くことが大切だ

이웃한 모든 사람, 모든 것
隣の全ての人、すべてのこと

두 팔 벌려 안고 싶다.
両腕を広げて抱きしめたい

- 조철호의 시집 《유목민의 아침》에 실린
- チョ・チョロの詩集<遊牧民の朝>に掲載された

〈시인의 말〉중에서 -
〈詩人の言葉〉より -

* ' 모든 것이 소중하다.
* ' すべてのこと大切です

두 팔 벌려 모든 것을 안고 싶다.
両腕を広げてすべてを抱きしめたい

나이들어 비로소 얻게 된 깨달음입니다.
歳をとってようやく得るようになった悟りです

그러지 못하고 산 것이 후회되고 아쉽고 억울해서
そうできなくて生きたことが、後悔になって、惜しんで、悔しくて

터뜨린 웅변입니다. 그러니 더 나이 들기 전에,
爆発させた雄弁です。だから、これ以上年を取る前に

기운이 좋을 적에 한 번이라도 더
元気がいい時に、1度でも、さらに

두 팔 벌려 많이 안아 주세요.
両腕を広げてたくさん抱きしめてください

늘 그렇게 사십시오.
ずっと、そう生きてください。

벌리다2

[타동사]

(두 사이를) 開ける.

(드러내다) ひらいて中身を取り出す.

(펴다) (すぼんだものを)開く; 広げる. [작은말] 발리다. (→벌기다·벌)...

일흔

[수사] [관형사] 七十; 七十 [아어(雅語)]. (=칠십)

이웃

[명사] 隣; 隣近所.

억울하다 (抑鬱—)

[형용사]

(抑制されて) 重苦しい.

(ぬれぎぬを着せられて) 悔しくて胸がふさがる.

터뜨리다

[타동사] 破裂させる; 爆発させる.

웅변 (雄辯)

[명사]

雄弁.

(主に, ‘웅변으로’ の形で) ‘明らかに’ の意を表...

2016년 4월 27일 보낸 편지입니다.

기적의 섬
奇跡の島

인간의 욕망으로
人間の欲望で

추악해진 섬, 그러나 한 사람의
汚れた島、しかし一人の

의지와 생각으로 다시 스스로의 모습을
意思と考えで、もう一度自らの姿を

되찾아가는 재생의 섬 나오시마는 기적이다.
取り戻す再生の島、直島は奇跡だ

아니 기적이 일상이 된 곳이다.
いや、奇跡が日常になったのだ

- 후쿠타케 소이치로, 안도 타다오 외 《예술의 섬 나오시마》 중에서 -
- 福武總一郎、安藤忠雄外〈芸術の島直島〉より -

* 우리나라 남해 외도(外島)도
* 我が国の南海の外島も

한 노부부의 꿈으로 기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ある老夫婦の夢で、奇跡の空間になりました

충주의 '깊은산속 웅달샘'도 한 사람의 꿈이 자라나
忠州の'深い山中の小さな泉'も、一人の夢が育ち

대한민국의 대표를 넘어 세계적인 명상치유센터로
大韓民国の代表を越え、世界的瞑想治癒センターに

자리잡고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가진 꿈에
育っています。誰でも自分が持った夢に

땀과 눈물과 사람이 더해지고 혼이 담기면
汗と涙と人が加わって、魂が盛られたら

'기적의 섬'을 만들 수 있습니다.
'奇跡の島'を作ることができます

추악 (醜惡)
[명사] 醜惡; 汚れ.

2016년 4월 28일 보낸 편지입니다.

꽃에 물을 주는 사람
花に水をあげる人

요즘 비밀이 하나 생겼다.
最近秘密が一つできた

남몰래 돌봐야 할 대상이 생긴 것이다.
こっそり面倒を見なければならぬ対象ができたのだ

기분좋은 꽃, 오늘도 나는 화분에 물을 주며
気運のいい花、今日も私は、植木に水をやって

이 작은 식물이 덩치 큰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この小さな植物が、図体の大きい人を幸せにしてくれる

있다는 것에 감동한다. 만일 화가 나거나, 너무
のに感動する。万一、怒ったり、とても

바빠서 사는 의미를 잊었다면 잠시 하던 일을
忙しくて、生きる意味を忘れたら、しばらくしたことを

멈추고 당장 작은 화분 하나를 구해
とめて、すぐ小さな植木一つを求めて

식물을 길러 보라. 그대도 진실로
植物を育ててください。あなたも本当に

행복을 느낄 것이다.
幸せを感じるだろう

- 유명선의 《100세 시대의 고민》 중에서 -
- ユ・ミョンソンの〈100歳時代のなやみ〉より -

* 꽃에 물을 주는 시간,
* 花に水をやる時間

가장 고요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一番静かで、一番幸せな時間です

최고의 명상입니다. 꽃에 물을 주는 사람을
最高の瞑想です。花に水をやる人を

바라보는 것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제 아내는
眺めることも幸せな時間です。私の妻は

매일 새벽 옹달샘 정원의 풀을 뽑고, 물을 주고,
毎日明け方、小さな泉の庭園の草を抜いて、水を与え

꽃밭을 가꾸는 일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花畑を育てる仕事に、すっかりはまっています

그런 아내를 보는 것만으로도
そんな妻を見ることだけでも

저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私は、これ以上ない幸せです。

남몰래

[부사] こっそりと; ひそかに; 人知れず.

植木の鉢に水をやる 발음 재생 (표제어: 화분)

화분에 물을 주다

덩치

[명사] 図体.

꽃밭

[명사]

花畑; 花園. (=화전(花田))

[속어] 若い女の多い所.

흠뻑

[부사]

十分に; たっぷり; うんと; 思う存分; 心ゆ...

すっかりぬれるさま: びっしょり; びしょびしょ; ぐっしょり; びちゃびち...

빠지다¹

[자동사]

(물에) 溺れる.

(허방 따위에) 陥る; 落ち込む.

(어떤 상태에) 落ちる; 陥る; 沈む.

2016년 4월 29일 보낸 편지입니다.

첫사랑의 기억
初恋の記憶

잠시 전 자동차를 타고
ちょっと前、車に乗って

올 때만 해도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것은
降りようとしても、私が頭の中に描いたのは

군대 가기 바로 직전 보았던 스물두 살 무렵의
軍隊に行く直前に見た、22歳のころの

자현이 얼굴이었다. 그때 그대로는 아니지만,
チャヒョンの顔だった。その時、そのままあなたではないが

나이는 먹어도 그래도 옛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歳をとっても、それでも昔の姿が多くのことっている

얼굴이었다. 첫사랑의 느낌은 나이를 먹지 않아도
顔だった。初恋の感じは年を取らなくても

그 첫사랑은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은 얼굴로
その初恋は、仕方なく年を取った顔で

내 앞에 서 있었다. 내가 마흔두 살이듯
私の前に立っていた。私が42歳であるように

자현이도 마흔두 살인 것이었다.
チャヒョンも42歳であるのだ

“오랜만이다. 정말.”
“久し振り、本当に”

- 이순원의 《첫사랑》 중에서 -
- イ・スンウォンの〈初恋〉より -

* 세월이 흘렀어도 첫사랑의 느낌은
* 年月が流れても、初恋の感じは

20년 전 그 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20年前のその瞬間、その場所に留まっています

나이들어 몸은 늙어도 마음만은 늘 청춘입니다.
歳をとって、体は老いても心だけはずっと青春です

그 첫사랑의 기억이 우리를 풋풋하게 합니다.
その初恋の記憶が我々を、みずみずしくします

그 풋풋함이 말라버린 내 마음을
そのみずみずしさが、枯れてしまった私の心を

다시 촉촉하게 적셔 줍니다.
もう一度、しっとり濡らしてくれます

꽃이 피어납니다.
花が咲きます。

무렵

[의존명사]頃; 時分.

푹푹하다

[형용사] (初物のように)みずみずしい; 生き生きしている; 生きがい...

촉촉하다

[형용사] やや湿っぽい; しっとりしている. [큰말] 촉촉하다.

2016년 4월 30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김재덕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キム・ジェットク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사랑이 깃들어진 손길
愛が宿った手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愛で仕事するのは何か?

사랑하는 이에게 입힌다는 마음으로,
愛する人に着せてあげる心で

그대의 가슴속에서 실을 뽑아 옷을 짜는 것입니다.
あなたの胸の中で、糸を選んで服を縫うことです

사랑하는 이에게 살 집을 마련해 준다는 마음으로,
愛する人に、住む家を準備してあげる心で

따뜻한 손길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温かい手で、家を作ることです。

사랑하는 이에게 열매를 먹인다는 마음으로,
愛する人に、果実を食べさせてあげる心で

정성들여 씨를 뿌리고 그 결실을
丹念に種を植えて、その結実を

기쁜 마음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喜ぶ心で、収穫するのです

- 칼린 지브란의 《예언자》 중에서 -
- ハリール・ジブラーンの〈予言者〉より -

* 사랑이 깃들어진 손길은
* 愛が宿った手は

엄청난 힘과 변화를 안겨줍니다.
とてつもない力と、変化を抱かせてくれます

차가운 것들을 밝고 따스함으로 전환시키는 힘입니다.
冷たいことを、明るい温かさに変化させる力です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은 혼과 정성, 진실된 마음으로
愛で仕事をするとは、魂と誠意、真実の心で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손길이
手を動かすのです。その手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世の中を温かくします。

열매

[명사]

実.

果実.

結果.

정성 (精誠)

[명사] 精誠; 真心; 丹念; 誠.

거두다

[타동사]

(散らばったものを) 集め収める; 取り入れる. [준말] 겠다³.

(結果·成果を) 得る; 収める.

(징수) (金などを) 取り立てる. [준말] 겠다³.

예언자

[명사]

予言者.

[기독교] 預言者. (=선지자(先知者))

혼 (魂)

[명사] 魂; 靈魂. (=넋·얼)

따스하다

[형용사] (やや) 暖[温]かい. [작은말] 따사하다.